

경제학의 한계... 내가 사례와 역사적 경험에 관심 갖는 이유

강준만의 《한국 현대사 산책》

경제학 이론에 입각하여 주식투자를 하겠다고 나선다면, 주식시장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웃을 것이다. 친절한 사람은 "이론과 현실은 다른 법"이라고 충고하려 들 것이다. 가격이론에만 의존하여 주식투자를 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 세계의 불문율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경제학은 시장과 가격을 핵심적인 탐구과제로 삼으며, 주식도 일종의 가격이고 주식시장 역시 엄연한 시장이라 한다. 무엇보다 경제학의 가격이론은 완전경쟁을 바탕으로 성립했으므로,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가격현상을 경제학은 충분히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주식시장보다 더 완전한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이 어디에 있겠는가? 완전경쟁시장인 주식시장에서조차 가격이론이 외면당한다면 다른 시장에서는 무엇을 해명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가격이론으로는 주식투자에 성공할 수 없다.

이건 무언가 이상한 일이다. 주식시장이나 주식이 가격이 잘못되었거나 경제학 이론이 잘못되었거나 둘 중 하나인데, 현실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현실은 자연의 섭리가 만들어냈지만, 이론은 그 현실을 대상으로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의 어떤 점이 잘못일까? 잘못된 것은 없다. 여전히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은 가격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력한 이론적 도구다. 다만, 크게 다음 두 가지가 문제일 따름이다.

그 하나는, 가격이론이 아직 미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간단하게나마 언급해두자면 이렇다. 가격은 수량은 물론이고 품질에 의해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데, 가격이론은 수량만 포섭하고 있을 뿐 품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한다. 또한 경제학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이 가격을 결정한다고 가르치지만, 이것은 변동을 결정할 뿐이다. 즉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내린다"고 말할 수 있을 뿐, 그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는다. 현재의 가격이론에는 변동의 원리만 있고 결정의 원리는 없는 셈이다. 다른 하나는, 경제학의 근본적인 한계이다. 경제학은 사회과학으로서, 경제현상 중에서 규칙적인 현상만을 대상으로 성립했다. 규칙적인 현상에서 법칙성을 찾아내고 그 법칙성을 이론화한 것이 경제학인 것이다. 그런데 규칙적인 현상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제학은 경제현상의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해명할 수 있을 뿐이다.

경제학이 항상 겸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제학은 위와



《한국 현대사 산책》(전 15권)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각권 300쪽 내외 | 값 각권 8,800원 · 9,500원

● 이 글을 쓴 최용식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5년간 대한투자진흥공사에서 근무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과학적으로 해체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우겠다는 뜻을 품고 직장을 그만둔 뒤 30년 넘게 이 문제에 천착했다. 현재 21세기경제학연구소(www.taeri.org)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사상과 경제학의 위기》(경제 역적들이 들어라) 《대한민국 생존의 속도》 등이 있다.

같이 엄연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론보다는 현실을 더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론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수준까지 발전하더라도 이 점은 변함없을 것이다. 내가 다른 나라 사례나 역사적 경험에 천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내 독서의 대부분도 요즘에는 역사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강준만이 쓴 《한국 현대사 산책》을 읽었고, 큰 감동을 느꼈다. 모두 15권으로 이뤄진 대작이라는 점도 놀랍지만, 방대한 자료를 수집한 노고는 더욱 돋보인다. 현대사에 관한 책을 여럿 읽어봤지만 이 책처럼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것을 과거에는 본 적이 없다. 이념과잉의 책들에 신물이 났던 나에게 이 책은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물론 경제학자인 나로서는 그 내용에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문제가 너무 소홀하게 다뤄진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학자가 아닌 강준만에게 이 점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경제문제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 점을 제외하면 이 책은 올해 최고의 책으로 추천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니,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야 할 책으로 추천하고 싶다. 15권 모두가 아니어도 좋다. 단 한 권이라도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현재라고 하지만, 과거를 어찌 외면할 수 있겠는가. 현재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던가. 현재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잉태한 역사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현재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미래를 살아가는 데에 지표로 삼을 수 있다. 그 역사가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혐오스럽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우리 현대사는 자랑할 만한 것은 결코 아니다. 아니, 외면하고 싶은 역사라고 해야 한다. 이민족의 식민통치를 받았다는 것도 그렇고, 해방마저 우리 힘으로 이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그렇다. 해방 후 미군정이 3년이나 지속되었다는 사실이나, 어렵사리 남쪽의 우리 정부가 세워진 뒤에도 미군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고 모든 면에서 외세의존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역시 부끄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분단의 아픔을 뼈저리게 겪어야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상처이다. 또한 일제시대부터 이어진 공포정치는 미군정 기간에도 변함이 없었고, 그 뒤를 이은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와 그 후계자인 전두환 일당의 군사정권에서도 그랬다.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은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 동

안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고 공포에 떨어야 했으며, 지금도 그 유산과 후유증은 면면히 살아남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

역사가 아무리 부끄럽더라도 외면할 일은 결코 아니다. 부끄러울수록 더 구석구석 해부하여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 흔히 역사는 반복한다고 말한다. 실패한 역사, 부끄러운 역사는 더욱 그렇다. 반성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역사는 앞으로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가장 부끄러운 역사인 식민지배조차 청산하지 못했다. 반성은커녕 규명조차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 심지어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서울대학교의 교수조차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초는 일제의 식민지배기에 다져졌다'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한다.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다.

일제하에서 이 땅을 등진 동포들이 무려 500만에 달하는데, 이런 망발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네 집에 한 집 꼴로 정든 고향을 등진 셈인데, 이들은 왜 풍토도 맞지 않고 날씨도 추운 이역만리로 떠났을까? 독립운동을 위해서였을까? 아니다. 절대다수는 일제의 착취를 피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났을 뿐이다. 해방 후에는 그들 중 절반에 가까운 230만 명이 환국했는데,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 수십 년간 생활의 터전을 닦았던 곳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애국심만은 아닐 것이다. 해방된 조국에서의 생활이 더 나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무엇을 어떻게 해줬다고? 일제하 산업시설은 자본금 기준으로 94퍼센트가 일본인 소유였고, 보조(시다)까지 포함한 조선인 기술자는 기껏해야 19퍼센트에 불과했다. 일본이 폐망한 뒤 그들이 남겨놓은 산업시설이 대부분 가동을 멈춰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이런 시설마저 6·25전쟁 때에 거의 모두 초토화되고 말았다(이 문제는 이 책의 범위 밖에 있지만, 이해하는 데에 다소 도움을 주기 위해 몇 자 적어 보았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던 세상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랑스럽고 풍요롭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면 부끄러운 역사 속에서 이런 현실을 누가 어떻게 가꾸었는지도 함께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다. 앞으로도 번영과 자랑스러운 길을 잘 가꾸어 가야 한다면 말이다. 강준만의 《한국 현대사 산책》은 이 점에 대한 고찰이 소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책을 우리 출판사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명저 중 하나에 올려놓고 싶다. ■■